(재)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 58 (2026. 4.), 287-315
ISSN 1226-5926 (print), ISSN 2586-2480 (online)
DOI: https://doi.org/10.28977/jbtr.2026.4.58.287
https://dbpiaone.com/bskorea/index.do

JBTR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새한글성경』 어휘의 특성과 역본에 따른 어휘 변천의 양상 연구

민현식*

1. 머리말

1.1. 연구 목표

『새한글』[1]이 『셩경젼셔』(이하 『구역』, 1911) 번역 100주년을 맞은 2011년부터 13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2024년 12월 발간되었다. 이 성경은 다음 세대의 중심이 될 현재의 청소년 세대의 예배·교육용으로 하되, 목회자·연구자에게는 최신 역본 비교 연구용으로, 성도들에게는 통독·가정 예배용 등으로 쓰일 것을 목표로 발간하였다.

번역의 "새로움"은 "낯섦"과 통하기에,[2] 기성세대에게는 『새한글』의 "낯섦"이 당연하지만, 다음 세대에게는 『새한글』의 "새로움"이 예배·교육용으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앞으로 활발한 비판적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기초 연구로 본고는 '어휘'를 '단어의 총체, 즉 어떤 일정한 범위 안에서 쓰이는 단어의 수효. 또는 단어의 전체'[3]로 정의하고, 연구 목표

*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중세국어 시간부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서울대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1) 『셩경젼셔』(1911), 『셩경 개역』(1938),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 『성경전서 새번역』(2004), 『새한글성경』(2024)의 약어를 『구역』, 『개역』, 『개역개정』, 『새번역』, 『새한글』로 쓴다. 뒤 셋은 『개역개정』(A), 『새번역』(B), 『새한글』(C)로 쓰기도 한다.

2) 박동현,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 해설 — 제안과 예시 —", 「성경원문연구」 56 별책 (2025), 7.

3) 참조, 『표준국어대사전』의 '어휘' 정의; 민현식 외, 『국어 의미 교육론』 (서울: 태학사, 2019), 173의 '어휘' 정의.

를 (1)『새한글』에 처음 쓰인 신어들의 목록을 정리한 "『새한글성경』에 처음 쓰이는 번역어 목록"[4]의 826개 신어를 대상으로 어휘 특성을 탐구하며, (2)『개역개정』(A) → 『새번역』(B) → 『새한글』(C)에 이르는 세 역본의 대조 분석의 모형을 수립하여, 이 모형을 창세기 1장에 실험적(시범적)으로 적용하여 ① 번역 변천 유형과 ② 역본별 어종(語種: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의 변천 양상을 분석하여『새한글』의 어휘 혁신의 정도를 파악하도록 한다. 아울러 이들 어휘에 대한 어휘의미론적 분석과 독자반응이론적 분석을 통해『새한글』의 어휘가 청소년의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규명해 보도록 한다. 비록 1개 장의 실험적 분석이지만 앞으로 이 '역본 대조 분석 모형'을 성서의 다른 장들에도 적용해『새한글』의 어휘 혁신의 정도가 기존 역본과 얼마나 다른지 검증,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1.2. 연구사

『새한글』의 보급본『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2021)이 먼저 나온 후 완역본『새한글』이 나오기까지 이두희,[5] 조재천,[6] 김동혁[7]이『새한글』신구약 번역의 특징과 원문 번역 문제를 다루었고, 박동현, 이두희, 민현식의 해설서가 나왔다.[8]

이어 번역가들이 각자 맡은 신구약 각 권에서 번역 사례를 예시한 해설 논문집이 신약은 이두희의 논문[9] 등 13편을 묶은「성경원문연구」55호 별책에서, 구약은 박동현의 논문[10] 등 18편을 묶은「성경원문연구」56호 별책에서 나와『새한글』의 번역 특성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들 31편의 논문은 성경 번역의 원칙을 "원문대로, 국어답게"라고 할 때 "원문대로" 살리면서, "국어답게" 표현하고자 고심한 흔적을 보여 주고 있다.

『새한글』의 머리말에서 밝힌 16개 번역 지침에 따라 신학자 36인과 국어

4) 박동현, "『새한글성경』에 처음 쓰이는 번역어 목록", https://www.bskorea.or.kr/bbs/board.php?bo_table=saehan&wr_id=54 (2026. 3. 9.).
5) 이두희, "『새한글성경』의 번역 배경과 주요 특징 — 신약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51 (2022), 224-251.
6) 조재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원문에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51 (2022), 280-303.
7) 김동혁,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의 특징과 실제",「성경원문연구」57 (2025), 142-163.
8) 박동현, 이두희, 민현식,『다음 세대를 위한『새한글성경』간추린 번역 해설집』(서울: 대한성서공회, 2025).
9) 이두희,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제안과 예시 —",「성경원문연구」55 별책 (2025), 7-21.
10) 박동현,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 해설 — 제안과 예시 —", 7-25.

학자 3인이 번역과 교열에 참여하였는데 어휘 번역 지침은 "성경 어휘에서 '어려운 난해어'를 청소년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생활어'로 번역한다"라는 대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다음 세대 곧 현재의 청소년 세대의 언어[11]는 "7-35세, 즉 초중고생 취학 연령대와 20대, 30대 전반의 청년 남녀가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이해하는 언어(일반어와 전문어)"로 정의하고, 난해어는 이들 청소년 세대가 평균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로 성경의 경우는 어려운 한자어라 할 수 있다. 앞으로『새한글』이 청소년 세대에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청소년 언어에 대한 연구 위에서 청소년 성경 사용자들의 광범위한 양적 설문조사와 질적 면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행히 미디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위한『새한글』활용 방안을 이승문[12], 이수인[13]이 다루고,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연구도 박덕유, 이안용,[14] 권순희[15]의 연구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고무적이다.

2.『새한글』어휘의 특성: 신어(新語)를 중심으로

『개역개정』(A)은『구역』(1911) –『개역』(1938) –『개역개정』(1998)의 변

---

11) 한국 청소년 언어의 특징은 참조, 양명희, 이정복, 박호관,『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연구 — 고등학교 2학년 서울, 대구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 국립국어원, 2005); 장경희 외,『청소년 언어실태 언어의식 전국 조사』(서울: 국립국어원, 2011); 김은성, "청소년어에 관한 청소년 문식 실천의 사례 연구",「국어교육연구」36 (2015), 383-424; 정혜승 외,『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심층 조사 및 향상 방안 연구』(서울: 국립국어원, 2017); 정혜승, "청소년 언어문화의 특성과 향상 방안",「한글」79:1 (2018), 135-163; 니폴드(M. A. Nippold)는 청소년기의 언어 발달을 구문·의미·화용적 측면으로 본다. M. A. Nippold, *Language Sampling with Adolescents* (San Diego: Plural Publishing, 2010).

- ○ 구문론적 발달: 문장의 길이와 복잡도 증가(종속절, 주어 후치 수식, 수동태, 접속어의 사용 증가)
- ○ 의미론적 발달: 비유적 언어 사용 증가(관용구, 은유 및 직유, 속담 및 속어), 유머 위트, 풍자 활용 증가, 고차적 어휘 사용 증가
- ○ 화용론적 발달: 또래와의 대화 빈도, 전자미디어 소통 증가. 대화, 이야기, 설명적 담화, 설득적 담화 등에서 고른 발달을 보임.

12) 이승문,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새한글성경』활용 방안",「성경원문연구」57 (2025), 241-261.

13) 이수인,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읽기와『새한글성경』",「성경원문연구」57 (2025), 262-291.

14) 박덕유, 이안용,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성경 한자어 교육 연구 —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45 (2019), 162-200.

15) 권순희, "『새한글성경』과『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 대한 한자 문화권 유학생의 이해도 차이 연구",「성경원문연구」57 (2025), 211-240.

천 속에서 중세 및 근대 한국어의 문체인 고전 경전체를 지켜와 한국 교회 부흥의 토대가 되었다. 그동안 난해어(주로 한자어)의 표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청소년 세대는 여전히 고전체 문장과 난해어로 인해 성경 독해를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이다.

『새번역』(B)은 현대인을 위한 성경이 되고자『개역개정』(A)의 고전체 문장을 현대 문체로 바꾸어 문장은 혁신하였지만,『새번역』의 어휘는『개역개정』의 성경 전문 용어와 기존 한자어를 답습하고 있어 어휘 혁신을 이루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새한글』(C)은 현 청소년 세대를 미래 다음 세대 독자층으로 분명히 상정하였고『개역개정』,『새번역』을 지배하는 문체나 용어의 전통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어보다는 생활어를, 한자어보다는 고유어를'중심으로 전면적인 어휘 개편을 하였다. 따라서『새한글』은 기존『개역개정』,『새번역』성경과 어휘 부문에서 혁신을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가장 정확하게 검증하려면『새한글』에 쓰인 번역어를 이전 역본과 대조 분석해 목록화하여 분석하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새로 쓰인 번역 신어를 목록화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는 방법도 유용하다. 마침 박동현의 "『새한글성경』에 처음 쓰이는 번역어 목록"에 나오는 826개 신어 목록[16]이 공개되어 이를 분석하면『새한글』의 달라진 어휘 특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1.『새한글』어휘의 혁신 양상[17]

박동현이 제시한 826개의 신어[18]는『새한글』(C)에 처음 도입된 신어들인데 그 쓰임새를 유형화해 본 다음 12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새한글』(C)에서는 성전, 제사, 절기, 종교 관련 난해어를 고유어 중심으로 순화하였고 필요시 한자어를 괄호로 병기하였다.

누룩없는명절(무교절)(출 23:15) 넘는명절(유월절)(출 12:11)

16) 박동현, "『새한글성경』에 처음 쓰이는 번역어 목록". 감사하게도 2026년 1월에 공개된 이 목록이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보충될 것이라 예고되었는데 필자가 살펴보니『개역개정』(A)에 나오는 '율법교사 세나'(딛 3:13)가『새한글』(C)에는 '율법 전문가 제나'로 나오는데 이런 표기 개선 사례들이 더 추가되어 완성 목록이 나오면 별도의 최종적 분석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17) 주로『새한글』의 용례만 제시하는데 일부에서『개역개정』→『새한글』방식으로 소개하기도 한다.

18) Ibid.

높이드는제물(거제물)(출 29:27) 다태우는제단(번제단)(출 30:28)
둥근지붕(궁창)(창1:6) 거룩한곳(성소)(출15:17)
높은곳(산당)(레 26:30)

(2) 특수하게 남은 구시대 한자어는 가급적 쉬운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로 바꿨다.

배필 → 짝(창 2:20) 장막 → 천막(창 4:20)
회막 → 만남의 천막(출 27:21)
사자 → 심부름꾼(창 32:3) 호심경 → 가슴갑옷(엡 6:14)[19]
면류관 → 왕관·화관·월계관(잠 12:4; 사 28:2; 계 3:11)[20]

(3) 생소한 고유어라도 사전 등재어로 문맥에 어울리면 활용하였다:

옹기 가마 → 녹임가마(창 19:28) 누운 상 → 깔자리(막 2:4)
부하 → 시중꾼(출 24:13)

(4) 특수 개념을 표현하고자 새말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흉패·관 → 가슴 주머니·머리두르개(출 28:4)
청지기 → 살림지기(눅 12:42)

(5) 추상적, 포괄적 개념어보다는 구체적, 실제적 표현을 택하였다:

지면 → 땅거죽(창 2:6) 살아나다 → 일으킴받아 살아나다(마 11:5)
온유하다 → 다정하다(고전 13:4)

(6) 한국어의 일상어인데도 성경 어휘로 활용되지 못한 단어들은 고유어나 한자어를 막론하고 활용하였다:

① 고유어: 과일즙(출 22:29) 겨레붙이(롬 11:14) 꼭두새벽(눅 24:1)
남몰래(삼상 18:32) 노랫말(시 4:1) 눈물샘(렘 9:1)

---

19) "의료용 가슴 보호기"라는 뜻을 가진 '가슴 갑옷'이란 사전 등재어에 에베소서 6:14의 '호심경'의 의미를 새로 부여해 대체어로 활용하였다.
20) 『개역개정』에는 '면류관'이 24회 나오는데 『새한글』에서는 '왕관', '화관', '장식품', '월계관'으로 바꾸어서 동양 봉건주의 유물인 면류관은 쓰이지 않는다.

늑장(벧후 3:9) 섬김이(딤전 4:6) 아뿔싸(레 10:16)
길동무(행 19:29) 뒷감당(잠 25:8) 불볕더위(신 28:22)
한솥밥(막 14:20) 한숨짓다(겔 24:17) 바람피우다(시 50:18)

② 한자어: 공공 감옥(행 5:18) 난민(사 15:5) 답변서(라 4:17)
대피소(신 32:37) 둔갑(고후 11:13) 마법사(신 18:10)
외설(엡 5:4) 문서 보관소(라 5:17) 반찬(잠 15:17)
고문하다(마 18:34) 공감하다(히 4:15) 독특하다(고전 7:7)
등한시하다(히 13:2) 자연스럽다(롬 1:26)

(7) 한국어의 발달 특징인 의성의태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새빨갛다(사 1:18) 새하얗다(막 9:3) 깜짝깜짝(사 21:4)
껑충거리다(아 2:8) 덜커덩거리다(나 3:2) 덜덜거리다(나 2:10)
쿵쾅거리다(아 5:4) 퀭하다(시 119:82) 딱딱하다(창 42:7)

(8) 현지 사물과 맞지 않는 사물 명칭은 현지 실정에 맞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감람나무 → 올리브(창 8:11)
향품·유향나무 열매·감복숭아 → 향고무·피스타치오·아몬드(창 43:11)
조각목 → 아카시아나무(출 25:5)

(9) 속어(俗語)들도 필요한 경우 활용하였다:

멍청이(마 5:22) 멍청하다(사 19:11) 노닥거리다(렘 15:17)
빈정거리다(벧후 3:3) 놀아나다(창 38:24)

(10) 일상에서 쓰이는 생활 외래어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메시지(신 2:26) 디자인하다(출 31:4) 다이아몬드(출 28:18)
리넨(출 26:1) 리터(창 18:6) 망토(딤후 4:13) 모르타르(사 54:11)
발코니(겔 41:15) 베일(출 34:34) 샌들(출 3:5) 숄(룻 3:15)
요구르트(창 18:8) 알로에(요 19:39) 커튼(아 1:5) 컴퍼스(사 44:13)
케이크(삼상 30:12) 크리스털(계 4:6) 텐트(아 1:5) 하트(삼하 13:6)
헬멧(시 108:8)

(11) 외래어 표기를 현실음에 맞추고 지명이나 관용구는 원어로 직접 표

기하고 괄호 병기를 하였다.[21]

① 고유명사 음역 표기 현실화

갈릴래아(사 9:1) 네부카드네자르(왕하 24:1) 니네베(창 10:11)
리바이어던(욥 3:8) 미카엘(단 10:21) 베델(창 12:8)
아르테미스(행 19:24) 아우구스투스(눅 2:1) 에페수스(행 18:19)
올리브(산)(행 1:12) 유대아[최고의회](공회)(마 5:22)
코르넬리우스(행 10:1) 카이사레아(마 16:13) 칼데아(창 11:28)
코린트(행 18:1) 키루스(라 1:2) 테오필로스(행 1:1)
토마스(마 10:3) 티레(수 19:29) 필리스티아(창 26:1)

② 원어 관용구[22]: 원어 관용구를 도입하고 괄호로 번역어를 붙임

엘샷다이(전능하신 하나님)(창 17:1) 호라이아문(아름다운 문)(행 3:2)
에헤아셰르에헤(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출 3:14)

(12) 차별적, 부정적 표현을 순화하도록 힘썼다:[23]

맹인·몸 불편한 자·다리 저는 자·코가 불완전한 자·귀먹은 자·말 못하는 자·등 굽은 자 → 시각장애인·신체장애인·지체장애인·안면장애인·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척추장애인(레 19:14; 21:18, 20; 사 35:6; 눅 14:13)

간질하는 자·중풍병자 → 뇌전증 앓는 사람·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마 4:24)

창녀 → 성매매 여성(창 34:31) 나병 → 심한피부병(출 4:6)

---

21) 성경의 인명, 지명 등의 외래어 표기 문제는 박동현, "개역한글판 히브리어 고유명사 한글 음역 방식과 히브리어 한글 음역 시안", 「성경원문연구」 8 (2001), 106-157; 박동현, "개역한글판 구약전서의 고유명사 음역 일부 통일 제안", 「성경원문연구」 11 (2002), 68-89; 박정수, "신약 고유명사의 새로운 표기법 제안 — 『개역개정』 사도행전의 인명과 지명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51 (2022), 170-200을 보라.

22) 『새한글』에서 구(句)나 문장 수준의 원어(출 3:14)를 소개한 경우이다.

23) 차별 언어에 대하여는 참조, 민영진, "우리말 성서 번역에 있어서 성차별 표현의 처리 —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15 (2004), 283-329; 이영미, "한글 성서 번역의 양성평등적 언어 활용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19 (2006), 47-68; 채은하, "한글 공인 성경들의 장애인 호칭과 대안 —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34 (2014), 162-180.

2.2.『새한글』의 성경 책명

『새한글』은 성경 66권의 책명에 대해 그동안 써 온 그리스·라틴 성경의 책명과 달리 히브리어 성경의 책명을 반영하고자 기존의 책명 옆에 히브리식 전통의 새 책명을 괄호로 병기하였다.

> 창세기(처음에) 출애굽기(이름들) 레위기(부르셨다) 민수기(광야에서)
> 신명기(말씀들) 사사기(재판관들) 열왕기상하(임금들1·2)
> 역대상하(역사일지1·2) 아가(노래 중의 노래) 예레미야애가(어째서)

기존 책명들의 장점도 있지만 한글세대에겐 암호 같은 책명이 많아 언젠가는 한글세대를 위한 개명도 점차 고려해야 할 것이다. 출애굽기라는 이름은 그리스·라틴어 성경 전통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을 책명으로 하였지만, 히브리 성경의 전통에서는 책 첫 장에서부터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이름들'로 불렸다.

레위기도 히브리 성경의 전통에서는 맨 앞에 모세를 부른 것에서 '부르셨다'라는 표현이 책 이름이 되었다. 레위기에는 그 책명과 달리 레위 사람들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 민수기는 사람의 수를 세고 가축의 수를 세는 것을 이어가므로 그리스·라틴 성경에서는 '숫자들'이란 이름으로 불렸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첫 장에서 나오는 표현대로 '광야에서'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광야에서'를 '광야기'로 해도 쉬울 것이다. 성경 교육용으로는 책명 교육부터 해야 한다는 점에서 최소한 히브리 성경 전통의 이름도 병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기존 '성경 목록가'(또는 성경가) 찬송도 있지만 모세오경 부분은 히브리식 새 이름으로 바꿔도 "처음에, 이름들, 부르시고, 광야에서, 말씀들 (주셨네)"정도로 바꿔 부르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한편『새한글』에서는 성경 인용 시 약호도 새로 정하였는데 '에-' 돌림의 '에스라(라)', '에스더(더)', '에스겔(겔)'을 끝 이름으로 약자를 삼는다. 현행 첫음절로 약어를 만든 경우는 에스더(에), 에스라(스), 에스겔(겔)에서 '스'는 '스바냐', '스가랴'와 헷갈리므로 끝음절 약자는 개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3. 어휘 존대법[24)]

(1) 신명(神名) 용어[25)]: 최초로 존대어 '성령님' 채택

한국어 성경에서 그동안 신명(神名)을 존대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님', '예수님'은 나왔지만 '성령'을 높인 '성령님'은 없었는데 『새한글』에서 최초로 '성령님'을 채택함은 획기적이었다.

'하나님'은 『개역개정』(A)에 3,644회 나오고 『새한글』(C)에 4,801회 나온다. '여호와 하나님'은 A에 40회 나오는데 창세기 1-3장 20회, 구약 중간에 여러 곳 나오다 시편 4회가 끝이며 신약에는 나오지 않는다. 『새번역』(B)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도 나오지 않으며 '주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A) [창 2:4]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B) [창 2:4]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C) [창 2:4] 하늘과 땅이 창조되던 때에 그것들이 생겨난 이야기가 이러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였다.

'주님'은 A에 32회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가리키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사무엘상 16:6에 처음 나오며 마지막은 사도행전 26:15의 바울의 고백에 나온다. 그런데 B에는 '주님'이 무려 8,561회 나온다. C에서도 '주님'은 다수 나타난다.

(A) [삼상 16:6]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A) [행 26:15]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B) [창 4:1하반]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 아이를 얻었다."

(C) [창 4:14] 오늘 당장 땅 위에서 저를 내쫓으시는군요. 저로서는 주님의 얼굴을 피해 땅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텐데, 절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때려죽이려 들겠지요."

---

24) 성경의 존대법 번역 문제는 조지윤, "존대법 번역과 성경 번역 접근법", 「성경원문연구」 25 (2009), 127-148을 참고하라.

25) 신명 용어는 성종현, "신·구약성서와 유대문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호와 예수의 이름에 대한 고찰", 「장신논단」 8 (1992), 102-125; 이영미,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 「신학연구」 83 (2023), 151-178을 참고하라.

‘예수’는 A에서 기본 표현으로 1,509회 나오는데 ‘예수님’은 한번도 나오지 않는다. B에서도 아래 예시와 같이 ‘예수께서, 예수께’처럼 ‘예수’가 기본 표현이고 ‘예수님’은 10회만 나오는 반면, C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은’처럼 ‘예수님’을 기본 표현으로 하여 A, B와 대조적이다.[26]

(B) [마 3:13] 그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B) [눅 23:42]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C) [마 3:16]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곧바로 물에서 솟아오르셨다. 그런데, 보라, 예수님께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니, 하나님의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예수님 위로 오셨다.

A에서 ‘성령’이 212회 나오는데[27] ‘성령님’이라고 존대한 경우는 없다. A의 ‘성령’은 열왕기하 2:9부터 나와 요한계시록 22:17까지 나온다. B에서도 ‘성령’만 쓰이고 ‘성령님’은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C에는 ‘성령님’이 기본 표현이고 ‘성령’은 ‘성령의 두루마기’(삿 6:34)와 같은 곳에 보인다.

(A) [왕하 2:9]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A) [마 1:18하반]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B) [마 1:18하반]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C) [마 1:18하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때였다. 그들이 한 방을 쓰기도 전에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이 드러났다. 아이가 생긴 것은 성령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

높임말인 ‘성령님’은 A, B 등 기존 역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데 C에 비

26) B(『새번역』)에 10회 나오는 ‘예수님’은 귀신이나 다른 등장인물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맥락에서, 예수님을 직접 부르는 부름말에 한해 10회 나타난다(막 1:24; 10:47; 눅 18:38 등). 예수님 칭호 문제는 김영인, “예수에 대한 칭호 ἀρχηγός의 해석과 번역”, 「성경원문연구」 53 (2023), 140-160을 보라.

27) ‘성령’을 가리키는 말로는 『개역개정』에 ‘하나님의 영’이 21회, ‘여호와의 영’이 22회, ‘주의 영’이 14회 나온다. 『새한글』에도 ‘하나님의 영’이 28회, ‘주님의 영’이 6회, ‘여호와의 영’이 34회 나온다.

로소 나와 획기적이다.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높이지 않고 도구나 신령한 기운 같은 것으로 부리는 이단들이 많은데 C에서 '성령님'으로 쓰는 것만으로도 존대의 삼위일체를 회복하고 성령님을 비신격, 비인격적 도구로 남용하는 일들이 사라지기를 기대해 본다.

C에서 '성령님' 대신 '성령'으로 쓰인 예는 '성령의 두루마기'가 3회(삿 6:34; 대상 12:18; 대하 24:20) 보이는데 A, B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이다.

> (C) [사사기 6:34]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셨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아비에셀을 불러 모아 자기 뒤를 따르게 했다.[28]

A와 C에 공히 '선생', '선생님'은 모두 나온다. 그러나 C에서는 존대어로 '어르신', '랍비님'이 더 나온다. A에는 '어르신'은 없고 '랍비'는 나와도 '랍비님'은 나오지 않는다. B에는 '어르신'은 나오지 않지만 '랍비'(3회), 또는 '랍비님'(7회)으로 쓰였다.

> (B) [막 9:5]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
> (C) [막 9:5] 베드로가 끼어들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천막을 세 채 마련하도록 하시지요. 랍비님을 위해 한 채, 모세를 위해 한 채, 엘리야를 위해서 한 채를요."
>
> (C) [창 23:6] "어르신, 저희 말을 들어 보세요. 어르신은 저희 가운데서 크게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저희의 묘지 가운데 가장 좋은 곳에 부인을 모시세요. …"

이상으로『새한글』에 나타난 어휘 혁신에 기여한 신어의 양상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세 역본의 변천 유형과 어종의 변천 양상을 검증하기 위한 '역본 대조 분석 모형'을 개발하고 실험적으로 창세기 1장에 적용하여『새한글』이 기존 역본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3. 세 역본에 따른 어휘 변천의 양상

28)『개역개정』에서는 이 부분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로 '여호와의 영'이라고 나온다.

3.1. 연구 방법: 역본(譯本) 대조 분석 모형의 필요성

우리는『개역개정』(A),『새번역』(B),『새한글』(C)의 세 역본을 통해 번역어의 특성과 변천을 알아보고자 창세기 1장을 택하여[29] 세 역본별로 대상 어휘 항들을 대조 분석하고 이들 역본 간에 (1) 번역의 동일성(동질성)과 차이성(이질성) 여부를 판정하여 이를 "번역의 변천 유형"으로 표시한다. 이어서 (2) 대상 어휘 항의 어종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로 분류하고 "어종의 변천 유형"을 판정하도록 "대조 분석 모형"을 수립하고자 한다. 모형이 수립된 후에는 주요 단어에 대한 어휘의미론적 분석[30]을 할 것이다. 또한『새한글』(C)이 다음 세대 독자인 청소년을 위한 성경으로 효과적인지 독자반응이론적 분석[31]도 시도할 것이다.

3.1.1. 세 역본(A, B, C)의 번역 변천 유형

분석 대상 단어의 A, B, C 역본 간 동일성 여부는 체언, 용언, 관형사, 부

---

29) 이들의 선정은 임의적이지만 한국문학의 갈래(장르) 분류에서 하는 '서정, 서사, 극, 교술' 분류를 참고할 때, 성경 갈래(장르) 특성도 문체나 어휘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①역사적 서사성과 극(劇) 요소가 복합된 창세기, 출애굽기, 열왕기, 룻기, 사복음서, 사도행전 등, ②교리적 교술성(敎述性)의 잠언, 복음서(산상수훈, 고난, 부활 이야기), 로마서(구원론), 고린도전서(신앙생활, 사랑의 교훈) 등, ③서정성(시가성)의 시편, 아가, 예레미야애가 등을 들 수 있다. 그리하여 창세기 2장,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절기, 제사, 성소 용어 부분, 시편(1, 23장), 마태복음(5-7장 산상수훈), 사도행전(11장), 고린도전서 13장도 분석하였으나 지면 제약으로 싣지 못하고 서사성이 강한 창세기 1장을 선택하였다.

30) 어휘의미론(lexical semantics)은 단어(또는 집합적 어휘)의 의미와 단어들 사이의 계열적 의미 관계인 유의어(동의어), 반의어, 상의어, 하의어, 동음이의어, 다의어라든가, 통합적 의미 관계인 관용구 따위의 연어(連語, collocation) 관계라든가, 의미의 역사적 변천에 따른 확대(다의화)와 축소, 어원, 어종(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를 연구하는 분야로 나이다(E. A. Nida, *Componential Analysis of Meaning: An Introduction to Semantic Structures* [Hague: Mouton, 1975].)의 성분분석(component analysis), 의미장(意味場, 낱말밭, semantic field) 이론도 이에 속한다. 우리는 주로 원어와 번역어의 의미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참조, 김광해,『국어 어휘론 개설』(서울: 집문당, 1993); 민현식 외,『국어 의미 교육론』.

31) 독자반응이론(reader-response theory)은 작품의 의미를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열려 있는 것으로 보고, 독자가 자신의 경험과 스키마(schema, 배경지식)를 활용하여 작품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완성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작가의 의도나 작품의 구조보다 독자의 반응을 중시하므로, 독자의 능동적 의미 구성, 해석의 다양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성경 교사는 성경 해석을 열려 있는 구조로 이해하도록 안내하고 선입견을 강요하지 않아야 하므로, 성경 교육이나 학습 모임에서 성경 독자가 스스로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해석을 내리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용하다. 성경해석학 연구에서 많은 연구가 있다. 참조, 앤서니 티슬턴,『앤서니 티슬턴의 성경해석학개론: 철학적·신학적 해석학의 역사』, 김동규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A. C. Thiselton, *Hermeneutics*: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 Co., 2009); 권연경,『갈라디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서울: 성서유니온, 2013) 등.

사 등에서 핵심부인 어근(語根, root)이다. 어근은 같은데 조사, 어미와 같은 광의(廣義)의 접사(接辭, suffix)는 역본마다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 접사류는 대상어의 동이성(同異性) 파악에 부차적이라 배제하고 한국어의 9품사에서 체언, 용언, 관형사, 부사 등의 핵심부인 어근만을 대조하여 동이성 여부를 판단한다. 다음은 이에 따른 변천 유형이다.

AAA: A의 역어를 B와 C에 그대로 쓴 경우
AAC: A, B의 역어가 같은데 C에 다른 역어를 쓴 경우
ABC: A, B, C에 모두 다른 역어를 쓴 경우
ABA: A, B의 역어가 다른데 C에 A를 쓴 경우
ABB: A, B의 역어가 다른데 C에 B를 쓴 경우
AA'A': A의 유사형[32] A'를 B와 C에 쓴 경우
AA'A: A의 유사형 A'를 B에 쓰고 C에 A를 쓴 경우
AAA': A, B가 같은데 C에 A의 유사형 A'를 쓴 경우
AA'C: A의 유사형 A'를 B에 쓰고 C에 새 역어를 쓴 경우
ABB': A, B가 다른데 C에 B의 유사형 B'를 쓴 경우
ABA': A, B가 다른데 C에 A의 유사형 A'를 쓴 경우
AOC, ABO, AOA', OBC … : 번역이 생략된 경우는 O로 표시

3.1.2. 세 역본의 어종(語種) 변천 유형

어종은 다음 유형이 있으며 각각 새로 나타난 해당 번역어들의 약호도 순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약어로 표시한다.

고: 고유어 곳: 새 고유어 곳: 두 번째 새 고유어
한: 한자어 핫: 새 한자어 햣: 두 번째 새 한자어
외: 외래어 욋: 새 외래어 왓: 두 번째 새 외래어
혼: 혼종어[33] 홋: 새 혼종어 횻: 두 번째 새 혼종어[34]

이에 따라 세 역본에서 보여 주는 어종의 변천 유형은 다음 사례들이 나온다.

---

32) 유사형은 동일형이 아니고, 동일형과 비슷한 동질적 형태 즉 동질형이란 뜻이다. 번역자들이 이전 번역보다 나은 개선형(改善形)을 찾을 때 형태가 유사한 동질적 유사형에서 찾거나, 완전히 다른 단어인 이질형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33) 혼종어(混種語)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라는 어종이 뒤섞인 혼합어라는 뜻이다.

34) '고곳곳; 한핫햣; 외욋왓; 혼홋횻'의 순서는 그 어종에서 새 개신형 단어가 출현한 순차대로 적은 표시로 ㅅ은 '새'의 약자로 쓴 것이다. 이들의 끝글자 '곳,햣,왓,횻'이 국어 음절로는 쓰이지 않는 글자라 '고고[1]고[2], 한한[1]한[2] …'방식, '고곳것, 한핫헛, 외욋엇, 혼홋홋'방식 등 여러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고고고: A, B, C에 같은 고유어를 쓴 경우
고고곳: A, B는 같은 고유어, C는 새 고유어
고곳고: A, C는 같은 고유어, B는 새 고유어
고곳곳: B에 새 고유어, C에 또 다른 고유어
고한고: A, C는 같은 고유어, B는 한자어
고한곳: C는 새 고유어, B는 한자어
고외혼: A는 고유어, B는 외래어, C는 혼종어
한한핫: A, B는 같은 한자어, C에 새 한자어
한핫햣: B에 새 한자어, C에 또 다른 한자어
한한고: A, B는 같은 한자어, C는 고유어
한핫고: A, B는 다른 한자어, C는 고유어
한고고: A는 한자어, B, C는 같은 고유어
한고곳: A는 한자어, B, C는 다른 고유어
기타 등등 유형

대조 분석 목록을 작성할 때, 단어:단어로 1:1 번역이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한 단어의 대응 단어가 적절하지 않아 구(句)나 절(節)로 풀어 번역하므로 그런 경우는 구, 절을 구성한 어종 전체를 보아 혼종구, 혼종절로 판정해 혼종어처럼 처리한다.[35] 역어의 전후 문맥을 보일 필요가 있을 때는 ( )로 밝혀 이해를 돕기도 한다.

3.2. 창세기 1장 역본의 대조 분석 목록

성경의 창세기는 성경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서광(曙光)이며 믿음의 출입문이다. 『새한글』(C)이 보여 주는 창세기 1장의 첫인상이 성경 전체의 인상을 좌우하므로 창세기는 매우 중요하다. 우주 창조와 인류의 기원, 죄의 기원, 구원의 기원, 문명사의 기원, 유대민족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원 등 창세기를 포함한 『새한글』(C)의 문체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는 기존 A, B, C 역본을 대조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하므로, 그 첫 부분인 창세기 1장의 역본별 대조 분석은 어휘 대조 분석의 시범적 모형이 된다는 점에서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앞 3.1.에서 밝힌 분석 방법에 따라 창세기 1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5) 번역 대응 시 '단어 : 구'나 '단어 : 절'의 경우를 제외할 수도 있으나 한 단어에 대하여 마땅한 대응어를 찾지 못하여 구나 절 차원으로 풀어쓴 경우라 그런 번역 대응 구성의 존재를 밝힐 필요가 있어 부득불 포함해 다루었다.

<표 1> 창세기 1장 역본의 대조 분석 목록

번호	절	『개역개정』(A)	『새번역』(B)	『새한글』(C)	변천 유형	어종 유형
1	제목	천지 창조	천지창조	하나님이 온 누리를 지으시다	AAC	한한고
2	1	태초에	태초에	처음에	AAC	한한고
3	1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AAA	고고고
4	1	천지를	천지를	하늘과 땅을	AAC	한한고
5	1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AAA	한한한
6	2	땅이	땅이	땅은	AAA	고고고
7	2	혼돈하고	혼돈하고	거칠고	AAC	한한고
8	2	공허하며	공허하며	비어	AAC	한한고
9	2	흑암이	어둠이	어둠이	ABB	한고고
10	2	깊음	깊음	깊은	AAA	고고고
11	2	위에	위에	물 위에	AAA’	고고곳
12	2	있고	있고	깔려 있었다	AAC	고고곳
13	2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AAA	한한한
14	2	수면 위에	물 위에	물 위에서	ABB	한고고
15	2	운행하시니라	움직이고 계셨다	움직이고 있었다	ABB’	한고곳
16	3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셨다	ABB	고곳곳
17	3	빛이	빛이	빛이	AAA	고고고
18	3	있으라	생겨라	생기기를	ABB	고곳곳
19	4	보시기에	보시기에	보셨다	AAA	고고고
20	4	좋았더라	좋았다	좋았다	AAA	고고고
21	4	어둠을	어둠을	어둠을	AAA	고고고
22	4	나누사	나누셔서	나누셨다	AAA	고고고
23	5	낮이라	낮이라	낮이라	AAA	고고고
24	5	부르시고	하시고	부르시고	ABA	고곳고
25	5	밤이라	밤이라고	밤이라	AAA	고고고
26	5	저녁이	저녁이	저녁이	AAA	고고고
27	5	아침이	아침이	아침이	AAA	고고고
28	5	되니	되니	되었다	AAA	고고고
29	5	첫째 날이니라	하루가 지났다	첫날이었다	ABA’	고곳곳
30	6	물	물	물	AAA	고고고
31	6	가운데에	한가운데	한가운데에	ABB	고곳곳
32	6	궁창이	창공이	둥근지붕(궁창)이	ABC	한핫고
33	6	있어	생겨	생겨	ABB	고곳곳
34	6	물과 물로	물과 물 사이가	물과 물 사이가	ABB	고곳곳
35	6	나뉘라	갈라져라	나누어지기를	ABA	고곳고
36	7	만드사	만드시고서	만들어	AAA	고고고
37	7	아래의 물과	아래에 있는 물과	아래의 물과	AA’A	고곳고
38	7	위의 물로	위에 있는 물로	위의 물을	AA’A	고곳고
39	7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	AAA	고고고
40	8	하늘이라	하늘이라고	하늘이라	AAA	고고고
41	8	둘째 날이니라	이튿날이 지났다	둘째 날이었다	ABA	고곳고
42	9	천하의	하늘 아래에 있는	하늘 아래의	ABB’	한고곳

번호	절	『개역개정』(A)	『새번역』(B)	『새한글』(C)	변천 유형	어종 유형
43	9	한 곳으로 모이고	한 곳으로 모이고	한 곳으로 모여	AAA	고고고
44	9	뭍이	뭍은	마른 데가	AAC	고고곳
45	9	드러나라	드러나거라	드러나기를	AAA	고고고
46	10	땅이라	땅이라고	땅이라	AAA	고고고
47	10	바다라	바다라고	바다라고	AAA	고고고
48	11	풀과	푸른 움을	푸른 것을	ABB’	고곳굣
49	11	(씨) 맺는	(씨를) 맺는	(씨) 있는	AAC	고고곳
50	11	채소와	식물과	푸성귀	ABC	한한고
51	11	각기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갖가지	AA’C	한핫고
52	11	(씨) 가진	(씨) 있는	(씨) 있는	ABB	고곳곳
53	11	나무를	나무가	과실나무를	AAC	고고혼
54	11	내라	돋아나게 하여라	싹 트게 하기를	ABC	고곳굣
55	13	셋째 날이니라	사흗날이 지났다	셋째 날이었다	ABA	고곳고
56	14	광명체들이	빛나는 것들이	빛을 내는 것들이	ABB’	한고곳
57	14	징조와	표가	징조와	ABA	한핫한
58	14	계절과	계절과	절기	AAC	한한핫
59	14	날과 해를	날과 해를	날과 해를	AAA	고고고
60	14	이루게 하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나타내기를	ABB’	고곳굣
61	15	비추라	훤히 비추어라	비추기를	ABA	고곳고
62	16	주관하게	다스리게	다스리게	ABB	한고고
63	16	(큰, 작은) 광명체	(큰, 작은) 빛	(큰, 작은) 것	ABC	한고곳
64	16	별들을 만드시고	별들도 만드셨다	별들도 만드셨다	AAA	고고고
65	18	(어둠을) 나뉘게	(어둠을) 가르게	(어둠을) 나누게	ABA	고곳고
66	19	넷째 날이니라	나흗날이 지났다	넷째 날이었다	ABA	고곳고
67	20	생물을	생물을	생물들	AAA	한한한
68	20	번성하게	번성하게	떼를 이루고	AAC	한한고
69	20	새가	새들은	새들이	ABB	고곳곳
70	20	날으라	날아다녀라	날아다니기를	ABB	고곳곳
71	21	큰	커다란	큰	ABA	고곳고
72	21	바다 짐승들[36]과	바다 짐승들과	바다괴물들과	AAC	고고혼
73	21	날개 있는	날개 달린	날개 달린	ABB	고곳곳
74	22	복을	복을	복을	AAA	한한한
75	22	주시며	베푸시면서	내리며	ABC	고곳굣
76	22	생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AAC	한한핫
77	22	번성하여	번성하여	불어나고	AAC	한한고
78	22	충만하라	충만하여라	가득하라	AAC	한한고
79	23	다섯째 날이니라	닷샛날이 지났다	다섯째 날이었다	ABA	고곳고
80	24	가축과	집짐승과	집짐승과	ABB	한고고
81	24	기는 것과	기어다니는 것과	기는 짐승과	AA’C	고곳굣
82	24	짐승을	들짐승을	들짐승을	ABB	고곳곳

36) ‘짐승’은 중세어 ‘衆生(즁싱)’에서 유래한다. 현대에는 이런 어원 의식이 희박해져 있어 귀화어로 보아 고유어로 처리한다.

번호	절	『개역개정』(A)	『새번역』(B)	『새한글』(C)	변천 유형	어종 유형
83	25	종류대로	종류대로	갖가지	AAC	한한고
84	26	형상을 (따라)	형상을 (따라서)	모습[37]으로	AAC	한한고
85	26	모양대로	모양대로	닮은 모양으로	AAA’	한한핫
86	26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AAA	고고고
87	26	하늘의	공중의	하늘의	ABA	고한고
88	26	땅에기는모든것을	들짐승과	기어다니는 온갖 짐승을	ABC	고곳꼿
89	26	가축과	길짐승을	집짐승과	ABC	한고곳
90	26	다스리게	다스리게	다스리게	AAA	고고고
91	27	남자와 여자를	남자와 여자로	남성과 여성으로	AAC	한한핫
92	28	정복하라	정복하여라	지배해라	AAC	한한핫
93	28	생물을	생물을	짐승을	AAC	한한고
94	29	지면의	땅 위에	땅 위에서	ABB	한고고
95	29	씨 맺는	씨 맺는	씨앗을 내는	AAC	고고곳
96	29	먹을 거리가	먹거리가	먹을거리가	ABA	고곳고
97	30	생명이	생명을	생명	AAA	한한한
98	30	푸른 풀을	푸른 풀을	푸른 푸성귀를	AAC	고고곳
99	31	심히(좋았더라)	참 (좋았다)	매우 (좋았다)	ABC	한고곳
100	31	여섯째 날이니라	엿샛날이 지났다	여섯째 날이었다	ABA	고곳고

3.3. 창세기 1장 번역의 변천 유형

이상의 100개 항의 유형들에 대하여 번역 변천 유형은 10개 유형으로 나타나며 우측에 A와 C만 비교한 변천 양상을 따로 제시하였다.

<표 2> 창세기 1장 번역의 변천 유형

변천 유형	변천의 특징	빈도	비율 (%)	A와 C의 대조			
				특징	빈도	비율(%)	종합(%)
AAA	세 역본 모두 동일한 단어 사용	30	30	C가 A와 같음	45	45	C가 A의 전통 보전 (保全) 48 (48%)
ABA	B에서 변화했다가 C에서 A로 회귀	13	13				
AA’A	B는 A의 유사형, C는 A로 회귀	2	2				
AAA’	A, B는 동일, C는 A의 유사형	2	2	C가 A와 유사	3	3	
ABA’	A, B는 다르고 C는 A의 유사형	1	1				

37) 모양(模樣)은 한자어이지만 “사람의 생긴 모양, 생김새”를 뜻하는 ‘모습’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어원 미상으로 보고 고유어로 본다. 이와 다른 ‘다른 것을 본떠 그대로 하거나 만듦’이란 뜻의 ‘모습(模襲, 摸襲)’은 한자어이다.

변천 유형	변천의 특징	빈도	비율 (%)	A와 C의 대조			
				특징	빈도	비율(%)	종합(%)
AAC	A, B는 동일, C는 새 번역	22	22	A, B와 다른 C만의 독자 번역	32	32	A와 다른 C만의 개신(改新) 52 (52%)
AA'C	B는 A의 유사형, C는 새 번역	2	2				
ABC	세 역본 모두 다른 단어 사용	8	8				
ABB	B, C는 동일 (A의 전통 탈피)	15	15	B의 개신 수용	20	20	
ABB'	B에서 새 번역 수용, C는 B의 유사형	5	5				
합계		100	100		100	100	100(%)

위 세 역본의 변천 추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1) 전통성(보수성)의 유지: 세 역본이 모두 일치하는 AAA 유형(30%)이 1/3 가깝고, 추가로 C가 AAA'유형(2%), AA'A 유형(2%)까지 합하면 총 34%로 최초 번역형이나 유사형을 1/3 가량 유지하고 있어 1/3 정도는 성경 어휘의 전통성(보수성)을 불변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2) 『새한글』(C)의 독자성: A와 B는 같고 C만 다른 AAC 유형이 22%, A, B와 다르며 C만의 고유한 번역을 보이는 ABC 유형 8%, 그 밖에 AA'C 유형 2%, AAA'유형 2%라 이들이 모두 『새한글』(C)의 독자성을 보여 준다. 이는 2024년 발간한 C가 현대적 표현이나 원문 직역을 위해 적극적인 어휘 변화를 시도했음을 뜻한다.

(3) 전통의 보전(保全)과 개신(改新)[38]의 갈등: 『새번역』(B) 이후 어휘가 C에서 수용, 정착된 ABB 유형(15%)과 B에서 시도한 변화가 다시 A의 익숙한 표현으로 회귀하는 ABA 유형(13%)의 비중이 비슷하여 B, C에서의 보전과 개신의 갈등이 혼재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이상에 따르면 창세기 1장은 역본 A와 C를 비교할 때 48%는 기존 역어를 사용하여 전통 번역을 보전하고 경전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반면에 『새한글』(C)은 A와 다른 역어가 52%라 절반 넘게 한국어의 다음 세대를 위해 새로운 표현을 찾아 번역한 성경이라 하겠다.

38) 보전(保全)은 "온전하게 보호, 유지하는 것"이고, 개신(改新)은 새롭게 개선하여 새로워지는 것으로 언어 형태의 생존 경쟁에서 이형태의 출현, 방언 경쟁, 외래어 차용의 수용을 설명할 때 '개신형'이란 용어를 쓰는데 번역학에도 '신역어'(新譯語)를 가리킬 때 필요하여 사용한다.

3.4. 창세기 1장 어종의 변천 유형

ABC의 번역 변천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려면 어종 변천 유형을 보아야 한다. 가령 AAA 유형은 '고고고, 한한한' 유형만 가능하기에 상관성을 갖는다. ABC 유형은 '고교곳, 한핫햣, 외욋왓, 혼홋횻, 한고외, 한혼고…'등 다양한 유형을 내포한다. 이를 위해 ABC 역본의 각 어휘항의 어종이 어떻게 변천하였는지를 분석해 통계를 제시하고, A를 기준으로 C가 어떻게 변하는지 따로 제시하도록 한다.

<표 3> 창세기 1장 어종의 변천 유형

어종 유형	어종 변천 유형(A→B→C)	빈도	비율 (%)	A와 C의 대조		
				특징	빈도(%)	종합(%)
고고고	원 고유어를 세 번역본 유지	25	25	A의 원 고유어 유지	39 (39)	고유어 87 (87)
고곳고	고유어→새 고유어→원 고유어	13	13			
고한고	고유어→한자어→원 고유어	1	1			
고곳곳	고유어→새 고유어(B, C) 유지	10	10	A의 고유어와 유사한 고유어	23 (23)	
고곳굣	고유어→새 고유어→또 다른 고유어	7	7			
고고곳	고유어→같은 고유어→새 고유어	6	6			
한고곳	한자어→고유어→새 고유어	6	6	A의 한자어를 고유어로	25 (25)	
한고고	한자어→고유어→같은 고유어	5	5			
한핫고	한자어→새 한자어→고유어	2	2			
한한고	한자어→같은 한자어→고유어	12	12			
한한한	원 한자어를 세 번역본 유지	5	5	A의 한자어 유지, 개선	11 (11)	한자어 11 (11)
한한핫	한자어→같은 한자어→새 한자어	5	5			
한핫한	한자어→새 한자어→원 한자어	1	1			
고고혼	고유어→같은 고유어→혼종어	2	2	혼종어 도입	2 (2)	혼종어 2 (2)
합		100	100		100	100(%)

A, B, C의 어종 변천을 분석한 결과, 가장 고빈도 유형은 고고고(25%), 고곳고(13%) 순이며, 한자어에서 고유어로 교체된 한한고(12%), 새 고유어로의 개신을 추구한 고곳곳(10%)과 고곳굣(7%) 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어화 경향(한→고/곳 유형): A의 한자어가 C에서 고유어로 바뀐 유형(한한고 12, 한고고 5, 한고곳 6, 한핫고 2)은 총 25개(25%)이다. 이는 한글세대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번역의 결과이다.

(2) 고유어의 정교화(고→곳/꽃 유형): 원래 고유어였으나 더 적절하거나 현대적인 고유어로 다듬어진 유형(고곳곳 10, 고곳꽃 7, 고고곳 6)은 총 23개(23%)로, 표현의 정교화를 꾀했음을 알 수 있다.

(3) 새로운 시도(고고혼 유형): 기존 고유어 '나무', '바다 짐승'(창1:11, 21)보다 표현을 더 구체적인 혼종어 '과실나무', '바다괴물'로 번역하여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려는 의도도 확인된다.

이상에 따르면 창세기 1장은 A에서 고유어 39개를 C에서도 39개 그대로 유지하고, 원 고유어 23개는 수정한 고유어로 바꾸고, A의 11개의 한자어는 C에서도 원 한자어 그대로 유지하고, A의 25개 한자어는 C에서 고유어로 교체하였으며, A의 고유어 2개(나무, 바다짐승)는 혼종어 '과실나무, 바다괴물'로 바꿔 정교화하였다. 따라서 C에서 최종 고유어 번역은 87%로 압도적 상태를 보이며 한자어는 11%에 머물러 한글세대에 맞는 쉽게 읽히는 성경임을 입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ABC 유형의 변천과 각 번역본의 어종의 구체적 변화 유형을 분석한 결과 어종 분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창세기 1장 역본의 어종 분포

어종	A.『개역개정』(%)	B.『새번역』(%)	C.『새한글』(%)
고유어	64 (64)	74 (74)	87 (87)
한자어	36 (36)	26 (26)	11 (11)
혼종어	0 (0)	0 (0)	2 (2)
합	100 (100)	100 (100)	100 (100)

이는 A에서 고유어 : 한자어 = 64% : 36%인 것이 B에서 고유어 : 한자어 = 74% : 26%로 나타나 문체의 현대화는 고유어의 증가를 뜻하고, 한자어의 퇴조를 보여 준다. 또한 C에서는 고유어 : 한자어 : 혼종어 = 87% : 11% : 2%로 나타나 어휘 현대화는 고유어의 압도적, 지속적 증가로 나타났다.

다음은 창세기 1:1-31에서 주요 단어의 어휘의미론적 특성을 살펴본다.

3.5. 창세기 1장의 어휘의미론적 분석[39]

(1) 전통적 권위의 유지(AAA 유형): ‘하나님(אֱלֹהִים)’과 같은 핵심 신학적 용어는 모든 번역본에서 동일하게 유지되어 성경적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

(2) 시간과 공간의 현대화: 시간어 ‘태초(בְּרֵאשִׁית)’와 공간어 ‘천지(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와 같은 전통 한자어 표현이 『새한글』(C)에서는 ‘처음에’, ‘하늘과 땅’과 같은 쉬운 현대 고유어로 구체화하여, 평범한 시간어 ‘처음’에 우주적 창조의 시간의 개념을 환기시키게 하였고,[40] 추상적 공간어인 한자어 ‘천지’도 일상적 구체어 ‘하늘과 땅’으로 시각화하여 추상적 한자어 ‘천지’를 머릿속에서 다시 고유어로 번역해 인지할 필요 없이 직관적으로 인지하게 돕는다.

(3) 추상적 표현에서 구체적 표현화: ‘흑암(חֹשֶׁךְ)’이 ‘어둠’으로, ‘수면(הַמָּיִם)’이 ‘물’로 변화함은 한자어보다는 직관적인 고유어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특히 히브리어 רָחַף를 오늘날 ‘차량 운행, 천체 운행’ 정도로 좁게 쓰이는 한자어 ‘운행’[41]으로 번역함은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므로 일상적 동작어 ‘움직이고 있었다’로 바꿔 무소부재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역사(役事)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39) 이하 히브리어, 그리스어 원어는 United Bible Societies, *Paratext* (Version 9.5); 라형택 편, 『로고스 Strong Cord 히브리어·헬라어 사전』 (서울: 도서출판 오앤오, 2024); 네이버 고대 히브리어 사전, https://dict.naver.com/hbokodict/#/main (2026. 3. 2.) 등을 참고하였다.

40) ‘처음’이 생소해 보이지만 이미 『개역개정』(A)에서도 창 1:1의 ‘태초’의 의미로 계 21:1, 22:13에서 ‘처음’을 사용하였다.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그리스어 낱말은 πρῶτος로 창세기에 나오는 표현인 רֵאשִׁית의 그리스어 대응어인 ἀρχή와는 다르지만, 내용상 서로 통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처음’을 ‘태초’의 유사 의미로 이미 사용하였으므로 『새한글』에서의 사용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며 기존 단어 사용의 일관성과 확장성으로도 볼 수 있고 고유어의 의미에 사고력과 생명력을 부여하는 확대 사용으로 볼 수 있다. 박동현, 이두희, 민현식, 『다음 세대를 위한 『새한글성경』 간추린 번역 해설집』, 195-196.

ㄱ. 계 21:1
『개역개정』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한글』 또 나는 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져 버리고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다도 더는 없습니다.
ㄴ. 계 22:13
『개역개정』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새한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다.

41) 운행(運行)「명사」
「1」: 정하여진 길을 따라 차량 따위를 운전하여 다님. 버스 운행 노선, 운행 구간. 운행 간격.
「2」: 『천문』 천체가 그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일. 달의 운행.
『표준국어대사전』참고.

(4) 직관적 이해도 상승: ‘태초’, ‘천지’, ‘궁창’과 같은 고어형 한자어들은 청소년들에게는 일상에서 쓰지 않는 ‘종교적 암호’로 느껴지므로 이를 ‘처음’, ‘하늘과 땅’, ‘둥근지붕’으로 바꾸어 독자는 별도의 사전 없이도 문장의 의미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5) 구체적 이미지 형성: ‘수면’, ‘지면’과 같은 평면적 한자어보다 ‘물 위’, ‘땅 위’와 같은 표현은 공간적 입체감을 더하여 성경을 읽을 때 머릿속으로 창조의 장면을 더 생생하게 그려 준다.

(6) 정서적 연결: ‘심히 좋았더라’에서 문어체 한자어 ‘심히’가 고유어 ‘매우’로 바뀐 것은 일상 고유어로 감정의 전달력을 높여, 하나님의 기쁨에 독자가 더 쉽게 공감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3.6. 창세기 1장의 독자반응이론적 분석

독자반응이론에서는 텍스트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독자의 경험과 언어적 배경(기대 지평)을 통해 재해석되어 완성된다. C는 기존 역본 A, B의 ‘권위적·종교적 언어’라는 장벽을 허물고, 한글세대와 청소년의 언어 감각에 맞춘 ‘직관적·시각적 언어’를 제공함으로써 독자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한다. C의 창세기 1장이 잘 읽힐 수 있는 근거를 ①성경 텍스트 요인, ②성경 활용 요인, ③독자 요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얼개로 정리할 수 있다.

3.6.1. 기대 지평의 일치: 추상적 개념어에서 구체적 일상어로의 번역

독자반응이론에서 독자는 자신이 익숙한 언어체계 안에서 정보를 처리한다. 기존 역본의 한자어는 추상적 개념어로 청소년들에게 소통의 ‘단절’을 일으키지만 C는 이를 구체적 일상어인 고유어로 대체해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준다. 가령, ‘태초’ 대신 ‘처음에’를 사용해 시간적 시작점을 즉각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천지’라는 관념적 단어를 ‘하늘과 땅’이라는 구체적, 직관적 실체로 표현한다. 추상적인 ‘혼돈과 공허’를 ‘거칠고 비어 있었다’로 번역해 상태에 대한 감각적 이해를 돕는다. ‘채소’라는 일반어를 ‘푸성귀’나 ‘푸른 것’으로 번역해 식물의 생명력 있는 색감을 강조한다. ‘큰 바다짐승’이라는 불투명한 표현 대신 ‘바다괴물’이라는 단어로 청소년 독자의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한다.

3.6.2. 구체적 배경 지식(스키마, schema) 형성: 시각적·공간적 번역

독자는 성경 이야기를 읽으며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린다. C는 고대 언어

의 은유를 현대 청소년이 시각화할 수 있는 단어로 복원하여 생생한 독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우주 발생의 과정을 '궁창'이란 난해어에서 '둥근지붕'으로 번역해, 고대 세계관의 하늘 모양을 그림처럼 상상할 수 있게 한다. 제2일의 '궁창'이 난해 한자어이므로 사어화(死語化)하여 B가 '창공'으로 번역한 것은 현실적이지만 '우주 공간'으로 사고를 확대시키지는 못한다. 그래서 C는 고대인의 우주관을 살려 '둥근지붕'으로 신조어를 만들고 '궁창'을 병기하였다.

제3일에 식물을 먼저 만들어 동물들의 먹이를 준비하면서 생물의 창조를 시작할 때, 11절의 '종류대로'는 1장에서 10회 나오는데 생물의 종(種)이 각각 종류대로 창조된 것을 암시하며, 종에서 종으로 진화하지 않음을 상징하고 있다. A에서 '(각기) (그) 종류대로'라고 한자어 '종류'를 사용한 것을 C에서는 '종류 = 가지'이므로 고유어 '가지가지'의 준말 '갖가지'로 바꿔 표현하였기에 '가지 = 갖'이라는 고유어로 '종'의 개념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한글세대와 청소년 세대가 성경의 의미나 창조 과학의 의미를 기존 한자어만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말 일상어나 고유어 속에서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 점에서 유의미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제4일에 천체의 광명체가 창조되어 식물의 광합성 활동 등으로 생태계에 생명력을 공급하게 하였고, 제5일에 어류와 조류를 창조하였다. A, B에서 번역한 '바다짐승'은 현대인이 바다 동물을 '짐승'으로 부르지는 않기에 '바다 + 짐승'은 기괴한 결합이므로 이를 '바다괴물'로 바꿨다. 이는 원어 תַּנִּין을 단순한 짐승이 아닌 신화적 맥락의 '바다괴물'로 번역하여 원어의 뉘앙스를 강하게 살리는 효과도 준다. מוֹעֵד를 단순한 '계절'에서 제의적(祭儀的) 의미의 '절기'로 번역함도 주목되며, '주관하게'와 같은 한자어를 직관적 고유어 '다스리게'로 표현하여 독자와의 거리를 좁혀 준다.

제6일에 들짐승, 집짐승(가축), 길짐승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상에서 다룬 창조의 과정은 '식물 → 어류와 조류 → 육지 동물'의 창조에 이르는 과정의 창조 과학적 질서를 보여 준다.

3.6.3. 대화적 현장성: 종결 어미와 문장 구조의 역동적 변화

청소년 세대는 긴 문장보다 짧고 역동적인 문장, 권위적인 명령보다 현장감 있는 서술에 더 익숙하다. 『새한글』(C)은 문장을 짧게 끊고 생동감 있는 어미를 사용해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을 강화했다.

'이르시되 … 있으라 하시니'라는 고전체 명령문을 '말씀하셨다. … 빛이 생기기를!'과 같이 현대적 대화체로 바꾸어 창조의 극적인 순간을 생중계하

듯 전달한다. 고전적 군사용어로 억압적 의미의 '정복하라'를 '지배해라'로 바꾸어 일방적인 하라체 명령이 아닌 해라체로 '위임과 소통'의 맥락을 표현하고 있다.

4. 맺음말

우리는 지금까지 2장에서 『개역개정』(A)의 문체와 어휘에 대하여 『새번역』(B)은 통사적 문체만 현대어로 개선하였고, 어휘는 『개역개정』(A)의 전통을 답습해 현대 청소년 세대에게 여전히 어려우나, 『새한글』(C)은 『개역개정』(A)과 『새번역』(B)에서 답습한 전통 어휘 특히 난해어를 과감히 쉬운 어휘로 대폭 개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즉 박동현이 밝힌 『새한글』에서 처음 쓰인 826개의 신어 목록[42]을 12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어휘 혁신의 실상을 확인하였다. 이는 그동안 『새한글』(C)을 위한 13년간의 새 어휘의 발굴과 적용의 노력이 다음 세대에 '읽히는 성경'이 되기 위한 노력으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기대하게 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개역개정』(A) - 『새번역』(B) - 『새한글』(C)에서 세 역본 간 번역의 변천 양상을 살펴보고자 실험적으로 창세기 1장을 대상으로 '역본 대조 분석 모형'을 개발하여 대조 분석 목록을 작성하고 번역 변천의 유형과 어종 변천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1차적으로 동이성, 즉 A, B, C의 같음, 다름, 비슷함 여부에 따라 변천 유형을 살펴보고 유형화하였다. 이어 2차적으로 1차 변천 유형 안에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라는 어종의 변천의 같고 다름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동이성 여부를 대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창세기 1장은 C가 A의 번역 전통을 유지 보전하려는 경향(보전도)이 48%, A와 다른 개신의 경향(개신도)이 52%로 『새한글』(C)의 개신도가 약간 높게 나타난다.

이는 『새한글』(C)이 창세기 1장에서 그동안 『개역개정』(A)과 『새번역』(B)에서 형성되어 온 한국어 성경 번역의 전통의 힘을 존중하면서도 절반이 넘는 강력한 어휘 갱신으로 적극적 개신을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이러한 적극적 개신은 고유어의 비중에서 나타나는데, 어종 분포에서는 창세기 1장은 C가 고유어 87%, 한자어 11%, 혼종어 2%, 외래어 0%로 고유어가 한자어의 약 8배나 되어 고유어 번역의 우위가 높다. 이처럼 고유어

42) 박동현, "『새한글성경』에 처음 쓰이는 번역어 목록".

가 한자어보다 8배나 높게 나타난 것은 성경의 가독성을 높이려고 고유어를 최대한 살려 번역한 결과임을 계량적으로 입증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어종 분포는 성경 장마다 외래 인명과 지명의 분량에 따라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으나 성경의 입문이요 관문이 되는 창세기 1장에서 상징적으로 고유어가 4/5를 차지하여 성경의 높은 가독성을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다음으로 우리는 어휘의미론적 분석, 독자반응이론적 분석에 따라 이들 성경의 어휘 항을 대상으로 의미 분석과 성경 학습자의 반응을 창의적으로 이끌어 내는 방안을 논의하여 『새한글』(C)의 창세기 1장에서 유의미한 사례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 『새한글』(C)이 교회학교와 각종 성경 공부를 위하여 독자의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어휘 탐구 방안을 개발하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는 점도 일깨울 수 있었다.

(4) 지금까지 우리는 『개역개정』(A), 『새번역』(B), 『새한글』(C)의 '역본 대조 분석 모형' 시안을 제시하면서, 계량 조사로 세 역본의 번역 동이성(同異性)의 정도를 분석하고 『새한글』(C)의 어휘 갱신의 정도를 '보전도'와 '개신도'의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는 성경의 극히 일부인 창세기 1장 31개 절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하여 세 역본의 변천 경향과 세 역본 번역어의 동이성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새한글』(C)의 어휘 개신도가 『개역개정』(A)과 『새번역』(B)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계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43]

아무쪼록 이번에 새로 나온 『새한글』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체와 어휘 갱신을 이루어 다음 세대에게 쉽게 읽히는 성경을 제공하고, 한국 교회에 지속적 부흥을 가져와, 남북의 겨레말을 하나로 통합하여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소망한다.

<주제어>(Keywords)

성경 번역, 새한글성경, 창세기, 고린도전서, 어휘 분석.

Bible Translation, The New Korean Translation, Genesis, 1 Corinthians, Lexical Analysis.

(투고 일자: 2026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26년 2월 27일, 게재 확정 일자: 2026년 4월 13일)

43) 이번에 개발한 '역본 대조 분석 모형'을 추가로 적용하여 창 2장, 시 1, 23장, 마 5-7장, 고전 13장, 행 11장 등 주요 성서의 장절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기존 역본들과 비교하여 『새한글』(C)의 '고유어 우세, 난해어 소멸'로 나타난 어휘 혁신의 정도(개신도)를 구체적, 계량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면 제약으로 다루지 못하였으나 다음 기회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참고문헌>(References)

네이버 고대 히브리어사전. https://dict.naver.com/hbokodict/#/main (2026. 3. 2.).

라형택 편,『로고스 Strong Cord 히브리어·헬라어 사전』, 서울: 도서출판 오앤오, 2024.

『표준국어대사전』.

United Bible Societies, *Paratext* (Version 9.5).

권순희, "『새한글성경』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 대한 한자 문화권 유학생의 이해도 차이 연구",「성경원문연구」57 (2025), 211-240.

권연경,『갈라디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13.

김광해,『국어 어휘론 개설』, 서울: 집문당, 1993.

김동혁,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의 특징과 실제",「성경원문연구」57 (2025), 142-163.

김영인, "예수에 대한 칭호 ἀρχηγός의 해석과 번역",「성경원문연구」53 (2023), 140-160.

김은성, "청소년어에 관한 청소년 문식 실천의 사례 연구",「국어교육연구」36 (2015), 383-424

민영진, "우리말 성서 번역에 있어서 성차별 표현의 처리 —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15 (2004), 283-329.

민현식 외,『국어 의미 교육론』, 서울: 태학사, 2019.

박덕유, 이안용,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성경 한자어 교육 연구 —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45 (2019), 162-200.

박동현, "개역한글판 구약전서의 고유명사 음역 일부 통일 제안",「성경원문연구」11 (2002), 68-89.

박동현, "개역한글판 히브리어 고유명사 한글 음역 방식과 히브리어 한글 음역 시안",「성경원문연구」8 (2001), 106-157.

박동현, "『새한글성경』구약 번역 해설 — 제안과 예시 —",「성경원문연구」56 별책 (2025), 7-25.

박동현, "『새한글성경』에 처음 쓰이는 번역어 목록",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새한글성경』자료실, https://www.bskorea.or.kr/bbs/board.php?bo_table=saehan&wr_id=54 (2026. 3. 9.).

박동현, 이두희, 민현식,『다음 세대를 위한 『새한글성경』 간추린 번역 해설집』,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5.

박정수, "신약 고유명사의 새로운 표기법 제안 —『개역개정』 사도행전의 인명과 지명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51 (2022), 170-200.

성종현, "신·구약성서와 유대 문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호와 예수의 이름에 대한 고찰",「장신논단」8 (1992), 102-125.

양명희, 이정복, 박호관,『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연구 — 고등학교 2학년 서울, 대구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 서울: 국립국어원, 2005.
이두희,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제안과 예시 —”,「성경원문연구」55 별책 (2025), 7-21.
이두희, “『새한글성경』의 번역 배경과 주요 특징 — 신약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51 (2022), 224-251.
이수인,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읽기와『새한글성경』”,「성경원문연구」57 (2025), 262-291.
이승문,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새한글성경』활용 방안”,「성경원문연구」57 (2025), 241-261.
이영미, “한글 성서 번역의 양성평등적 언어 활용에 관한 연구”,「성경원문연구」19 (2006), 47-68.
이영미,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신학연구」83 (2023), 151-178.
장경희 외,『청소년 언어실태 언어의식 전국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2011.
정혜승 외,『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심층 조사 및 향상 방안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2017.
정혜승, “청소년 언어문화의 특성과 향상 방안”,「한글」79:1 (2018), 135-163.
조재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원문에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51 (2022), 280-303.
조지윤, “존대법 번역과 성경 번역 접근법”,「성경원문연구」25 (2009), 127-148.
채은하, “한글 공인 성경들의 장애인 호칭과 대안 —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34 (2014), 162-180.
티슬턴, 앤서니,『앤서니 티슬턴의 성경해석학개론: 철학적·신학적 해석학의 역사』, 김동규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Thiselton, A. C., *Hermeneutics: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 Co., 2009.
Nida, E. A., *Componential Analysis of Meaning: An Introduction to Semantic Structures*, Hague: Mouton, 1975.
Nippold, M. A., *Language Sampling with Adolescents*, San Diego: Plural Publishing, 2010.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Vocabulary of the New Korean Translation and the Aspects of Vocabulary Change according to the Translation Version

Hyunsik Mi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develops a contrastive analysis model between translations and experimentally conducts a contrastive analysis of lexical choices of the Bible — Gen 1 — using three different translations: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NKRV, 1998), the Revised New Korean Standard Version (RNKSV, 2004), and the New Korean Translation (NKT, 2024). The analysis focuses on identifying the homogeneity and heterogeneity among the vocabulary used in these versions.

First of all, it highlights that the NKT adopted 826 new translation terms specifically chosen to reduce the use of difficult language by maximizing the use of accessible, pure Korean words.

· Difficult Sino-Korean words were simplified into simpler words whenever possible: 넘는명절(유월절), 둥근지붕(궁창).

· New words were created and used to express specific concepts:
흉패→가슴 주머니, 청지기→살림지기, 호심경→가슴갑옷.

· Everyday language was utilized regardless of whether it was native Korean or Sino-Korean: [Native Korean words] 과일즙, 겨레붙이, 꼭두새벽, 불볕더위, 한솥밥, 한숨짓다, 바람피우다. [Sino-Korean words] 난민, 대피소, 고문하다, 공감하다.

· Onomatopoeia, a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language, was actively utilized: 새빨갛다, 깜짝깜짝, 껑충거리다.

· Plants were replaced with accurate terms used in the Bible: 감람나무 → 올리브나무, 유향나무열매·감복숭아 → 피스타치오·아몬드.

· Slang was also used when necessary: 멍청하다, 놀아나다.

· Practical loanwords used in daily life were actively accepted:
메시지, 디자인, 리넨, 리터, 망토, 베일, 샌들, 커튼.

· Proper nouns written according to their actual pronunciation: 갈릴래아, 니

네베, 리바이어던, 베델, 에페수스, 유대아, 필리스티아.

· Place names and idioms are written in the original language, with the Korean translation in parentheses: 엘샷다이(전능하신 하나님), 에헤아셰르에헤(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 Discriminatory and negative expressions have been softened: 맹인·말 못하는 자 → 시각장애인·언어장애인, 나병 → 심한피부병.

The study further categorizes the vocabulary found in each chapter to analyze the distribution of various word origins, specifically: Pure words(고유어), Sino-Korean words(한자어), Loanwords(외래어), Mixed words(혼종어).

Tradition vs. Innovation: In the analyzed chapter (Gen 1), there is an average tendency of 48% to preserve and pass down traditional expressions, while approximately 52% reflects a trend toward new updates and modernization.

The vocabulary consists of 87% pure words, 11% Sino-Korean words, and 2% mixed words. The frequency of pure words is nearly eight times that of Sino-Korean words, which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enhancing the readability of the Bible for its readers. The research demonstrates how the NKT can be explored meaningfully through the lenses of lexical-semantic analysis and reader-response theory.